
2020년 제48호 방송심의보고서

2020. 11. 20. ~ 11. 26.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길 따라 인문학		
방송일자	2020. 11. 21.	시청률	0.024

【총 평】

‘순천만, 삶과 생명을 품다’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를 앞두고 있는 세계 5대 연안 습지 순천만 습지와 국가정원 1호인 순천만 국가정원의 가을 전경을 중심으로 인근 낙안읍성 민속마을, 순천 조계산 선암사와 송광사 자연풍광을 살펴보고 문향 순천의 주인공 김승옥 소설가의 문학을 집중 조명한 기획이 돋보였다. 삶과 생명을 품은 순천만의 갯벌과 갈대의 군무, 희귀철새의 합창, 순천만 국가정원의 뛰어난 영상미, 성곽원형이 잘 보존된 낙안읍성 주민들의 월동 준비 등이 섬세하게 그려졌다.

【구성 및 내용】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 해안사구 생태계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순천만을 둘러보았다. 순천만은 갯벌과 갈대군락이 잘 조성, 보존되어 있고 이로 인해 철새들이 쉬어가는 곳이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상징하는 순천만을 따라 지역의 문학과 역사, 문화를 소개했으며, 순천만의 생태학적 가치를 품은 지역 명소를 알려주었다. 순천이 배출한 김승옥 선생의 ‘무진기행’은 고향을 대상으로 한 소설로 소외당한 현대인의 고독과 비애를 그린 작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은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 외곽을 꽃과 나무로 차단하면서 시작되었다. 도시의 팽창을 막고자 생태계의 보고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순천을 생명을 품은 고장으로 만들었다.

돌담을 경계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낙안읍성은 조선태조 때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운 토성이었으나 세종 때 석성으로 변모했다. 낙안읍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앞두고 있다. 2023년도에 본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가야금병창 명인인 오태석 선생의 생가가 있는 곳이다.

낙안읍성 인근에 소재한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은 한창기 선생이 전통문화를 되살리려는 의지가 담긴 곳으로 출판인 한창기 선생의 대표적 업적을 소개하고 그의 소장품을 전시한 박물관이다. 순천 선암사는 자연이 품은 건축물로, 통일신라시대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송광사를 통한 자연 풍경이 아름다워 기행의 맛을 더했다.

선암사 입구에는 보물 제 400호로 자연미를 살린 석교인 승선교가 반긴다. 선암사 곳곳에는 보물과 지방문화재 등이 즐비하다. 정호승의 시 선암사는 바로 이곳을 소재로 지어진 것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명의 국사를 배출한 송광사에는 침계루라는 건물이 눈에 띈다. 길이가 다른 8개의 기둥이 개울의 경사에 맞춰 건물을 떠받치고 있다. 말과 행동을 절제하며 소처럼 묵묵하게 정진한다는 뜻의 ‘묵우가품’이라는 문구가 사찰의 정체성을 전해준다. 한편 법정스님이 한동안 머물며 글을 쓰던 곳으로 무소유의 산실이라고 불리고 있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 소리		
방송일자	2020. 11. 21.	시청률	0.006

【총 평】

‘흙 내음 바람소리, 늦가을 광주’는 깊어진 마지막 가을의 경기도 광주 풍경을 화면에 담았다. 특히, 자연의 섭리와 수려함을 드러낸 경이로움 그 자체였고, 자연으로부터 느끼는 자유와 치유의 공간이었음을 잘 표현했다.

단풍이 한창이 경기 광주의 화담숲길에 들러 단풍나무 군락지를 소개하면서 가을의 정취를 전했고 남한산성을 찾아 이 곳에 얹힌 역사적 배경을 소개했다. 또, 남한산성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모습을 감상하고, 탄벌동의 도자기 명인을 만나고 그 곳에서 직접 도자기를 빚는 과정을 소개했다.

【구성 및 내용】

경기도 광주시를 찾아 늦가을 숲의 풍경과 남한산성, 그리고 도자기 공방에서의 도자기 체험까지 할 수 있었다. 가을 풍경과 함께 숲길에서 낙엽 밟는 소리와 도자기 굽는 가마에서 참나무 타는 소리가 인상적이었다.

최근 단풍 명소로 크게 각광받고 있는 곳이 화담숲이다. 눈 돌리는 곳곳, 발길 닿는 곳곳 그야말로 절경인 화담숲은 생물자원 보호 차원에서 국내 최다 종을 수집해 멸종위기의 동식물을 복원하여 자연에 자리잡게 하는 생태계 복원을 위한 현장 연구시설이다. 조용히 귀 기울이면 자작나무 숲의 가을바람 일렁이는 소리, 숲 트래킹 코스에서의 낙엽 밟는 소리 등 가을 자연의 소리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화담숲에서는 겨울을 재촉하는 나뭇잎과 생소한 마른 식물들, 내장단풍, 당단풍, 천년단풍, 화살단풍, 홍단풍 등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단풍나무 군락, 자작나무 숲, 개울소리, 늦가을바람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풍경소리를 담았다.

또 조선시대 산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을 둘러봄으로써 천년이 넘는 역사의 현장과 늦가을 풍경을 담았다. 문화해설사가 남한산성의 건축법과 퇴물림 구조에 대해 설명한 장면이 기억에 남았다. ‘퇴물림’ 방식으로 쌓은 남한산성이 조선 성곽축성술의 교과서 같은 존재라는 사실 등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흙으로 도자기를 빚는 곳으로, 분장회청사기의 대가인 박상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1호를 만나 흙에서 느낄 수 있는 시간과 인내를 늦가을 정취에 담아냈다. 흙반죽을 시작으로 흙을 밟기부터 시작해서 기포를 빼주고 한쪽 면을 4번씩 밟고 뒤집어서 4번씩 또 밟기, 손으로 치대기, 치댄 흙으로 도자기 빚기, 가마에서 도자기 굽기 등 도자기 빚는 과정과 함께 가마 앞에서 나무가 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도예실에서 흙을 치대고 물레를 돌리고 하는 장인의 작업과정이 소개가 되어 꽤 흥미로웠다. 물레 돌리는 소리도 아주 듣기 좋고 색다른 소리였고, 도자기에 그림을 새겨놓은 장면도 무척 신기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11. 21.	시청률	0.065

【총 평】

‘나우북’은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방역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 곤충의 사인까지 규명해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뤘는데 코로나19에 대한 노이로제가 얼마나 심한지 잘 느낄 수 있었다. ‘단박톡’은 미국 바이든 당선 이후 변화할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 도쿄올림픽에서의 남북관계 전망과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짚어보았다. 바이든 당선 이후에도 인도적 차원의 북한에 대한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진단하고 네티즌들의 전쟁공포에 대해 안도감을 준 답변과 한국계 하원의원 당선자 4명의 관심으로 이산가족 상봉도 희망적임을 알려주었다.

【구성 및 내용】

‘NOW 北’은 북한의 최대월동준비인 김장 전투 상황과 김장 담그기를 포기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최근 북한 경제난과 코로나 위기 등 속사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줬다. 코로나19가 박쥐에서 발원하며 중간 숙주를 거쳐 사람에게 전파되었다는 보고와 관련, 북한에서는 철통 방역의 입장에서 동물, 곤충을 통한 감염 또한 철저히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은 비상방역전의 강도를 높이는 주문을 하였는데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소위 ‘김포족’ 그러니까 김장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다뤘는데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북한은 어려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일을 해내야 할 때 전투라고 표현한다. 김장은 북한 주민에게 있어 겨울철의 주요 식량이자 반찬이다. 그러나 지난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배추, 무, 양념 재료의 가격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김장재료의 이동 어려움, 주민들의 가게 경제 악화 등으로 김장을 포기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

‘단박톡’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북미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우리 정부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분석했다. 바이든 당선자의 상원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프랭크 자누지가 미 대선전에 통일부를 방문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유추해 본 것은 의미있었다.

또, 80일 전투성과와 관련,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6년에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다. 그리고 올해 말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는데 80일 전투라고 별다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보건분야와 관련, 인도주의적 남북교류 등이 필요하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일본올림픽 공동입장과 함께 향후 공동개최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고, 경색된 남북관계에 있어 이산가족 상봉은 개선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방송일자	2020. 11. 21.	시청률	0.001

【총 평】

경북 청도읍에서 수백 명의 민간인이 무차별적으로 희생된 청도 민간인 희생사건을 추적한 '사라진 사람들, 청도 민간인 희생사건'을 방송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높은 산악지대로 인해 빨치산 활동이 활발했던 경북 청도군의 아픈 역사는 98세 할머니의 한마디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올해 100세"라며, "보고 싶다"는 98세 아내가 던진 메아리는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살해된 경북 청도 민간인들의 억울한 희생을 청도군 각북면 삼청리와 남산리, 청도군 이서면 금천리, 청도군 곰도읍 곰티제, 청도읍 원정리 유족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구성 및 내용】

위령탑에서 시작해 위령탑으로 끝나는 수미쌍관식 구조를 선보였는데 꽤 관심을 끌 만한 기법이라 기억에 남는다. 시작부분에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마무리부분에서는 애절한 감성을 자극하는 기법이었다. 청도의 지역적인 특징에 관해 짧게 소개한 점도 인상적이었는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입산자가 많았고 빨갱이들의 활동도 많았다는 부연 설명이 마을의 비극적인 과거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도와주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경상북도 청도지역에서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을 다루었다. 1950년 전후 군경의 공비 토벌작전으로 인해 민간인에 대해 공비를 돕거나 좌익 단체 가입 여부만으로 무참히 민간인을 집단 살해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이 된 지역에는 청도뿐만 아니라 여수, 순천, 나주 등의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서 서슴없이 민간인에 대한 집단 학살 사건이 적법한 절차없이 진행됐다. 청도 민간인 희생사건의 유가족 5명의 사례를 통해 당시의 상황과 영문도 모른 채 가족을 잃게 된 사연을 들려주었다.

아버지를 잃은 유족의 사연부터 소개했는데 당시 면사무소와 지서 터로 이동을 하며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 영남유격지구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짧게나마 1949년부터 1952년 사이의 혼란했던 시국을 짐작하게 만들어 준 점이 좋았다.

아버지와 형이 희생된 유가족은 5촌이 빨치산이라는 직접적인 이유가 언급되어 이해를 도왔고, 당시 얼마나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무차별적인 학살이 자행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죽은 이유를 모르고 희생되었다고 언급한 대목이 깊은 여운을 남겼다. 아버지가 희생된 유가족은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희생 이유를 보도연맹원 가입 때문이라고 추측했고, 빨갱이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은 사연을 회상하여 당시의 험악한 분위기를 짐작하게 만들었다.

98세 할머니의 사연이 특히 기억에 남는데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해 100살이 가깝도록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 너무나 애뜻했다. 또,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필체를 소중히 보관하고 있는 모습 등은 감정적으로 동화되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11. 22.	시청률	0.002

【총 평】

최근 청와대 국회 세종이전 플랜을 밝힌 시의성을 살려 1부 ‘다시 불붙은 행정수도론’에 이어 ‘세종시, 행정수도 준비 됐나?’를 연속으로 기획해 교통과 숙박시설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끌어냈다. 국회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자는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제반여건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본 것은 시의적으로 적절하고 또 의미 있는 기획이었다.

지난 8년 사이 세종시 인구가 5배 늘어난 35만 명에 이르고 차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나 행정수도를 수용할 만큼의 교통 및 숙박 등 편의시설 인프라 구축이 미비해 이를 개선,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 및 내용】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할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 확충과 숙박시설 등에 대해 현장 취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촉구한 실증적인 방송이었다.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에 요구되는 교통망의 정비, 관문역과 고속버스터미널, BRT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세종시 조성 초창기에는 정부세종청사를 빼고는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했으며 대중교통 또한 시범 운행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아파트, 도로,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서면서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여러 가지 조건 중 교통망 확충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취재했는데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생각한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점도 좋았고, 특히 세종시 교통문제와 관련한 콘텐츠로 대상을 받은 양지고등학교 학생들의 생생한 체험담을 통해 무엇이 문제의 핵심인지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전국과 세종시를 연결할 교통망이 어느 정도 완비되었지만 세종시의 관문역이 미비한 것은 아쉬운 상황이며, 고속버스터미널도 지방 중소도시 규모로 아쉬운 면이 있다. 또,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더라도 택시를 보기 힘든 상황이다.

담당PD가 직접 BRT를 타고 이동하면서 연계 교통수단의 부족 문제를 지적했는데 체험적 취재라는 점에서 시청자가 느낄 수 있는 메시지의 강도는 더 커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세종시에 취재차 자주 내려오는 기자의 경험을 통해서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언급한 부분도 실증적인 느낌을 줬다. 결론적으로 이번 취재는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다양한 체험담 그리고 현장취재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힘을 느낄 수 있었고 메시지도 키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세종시 교통지도, 교통상황 등에 대한 그래픽 구성으로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는데, 도로 설치가 나무 모양이 아닌 BRT 도로 중심이고 노폭이 4차선에 불과해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래픽으로 드러났다.

프로그램	밥보다 법		
방송일자	2020. 11. 22.	시청률	0.094

【총 평】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혼소송만 무려 3만5228건으로 전체 가사소송의 74%가 이혼소송이다. 밥보다 법 ‘신혼이혼’은 신혼이혼 기준에 대해 명확한 제시와 개념을 설명했다. 결혼을 약속하고 먼저 혼인신고를 하거나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게 될 경우 발생하는 다양한 개별사례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결혼 3년차가 위자료와 재산형성 기여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며, 이혼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경제적 이유’, ‘관계 갈등’, ‘부정행위’ 등인데 신혼이혼의 경우 경제적 이유가 가장 많은 편이다. 신혼이혼 기준, 신혼이혼 최근 추세,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차이, 의뢰인의 가장 최선의 선택, 이혼이나 헤어짐으로 인한 반려견 문제 등 맥락 있는 구성과 집중력 높은 내용 전개로 프로그램의 질을 높였다.

【구성 및 내용】

황혼이유가 배우자의 부정이나 외도에 있는 반면 신혼이혼의 사유는 결혼 전 빚을 숨기고 결혼하였거나 하는 경제적 이유 등이 주된 원인이다. ‘신혼이혼’의 주요 내용은 신혼이혼 기준은 결혼 3년차, 신혼이혼에 연차 기준이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빚과 이성 문제로 부부간 신뢰가 깨진 상담자들의 고민 상담, 성 문제, 고부 갈등, 반려견의 소유권과 재산 분할 문제였다.

결혼 전 아내의 숨겨놓은 빚 때문에 이혼을 고려중인 남편의 사례는 신혼 이혼의 대표적인 이유가 언급되어 공감대를 형성했고 사기 결혼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정확하게 언급되었다. 또, “남자들은 아내의 결혼 전 채무를 숨겨놓은 자식만큼 싫어한다”는 변호사의 직설적인 표현이 눈길을 끌었다. 결혼 전 남편과 동거했던 여성이 찾아와 채무 탕감을 요구하는 문제로 혼인취소를 고려중인 여성의 사례는 혼인신고 취소를 다루면서, 이혼과 혼인취소, 혼인무효에 관한 구분이 잘 정리되어 유익했다. 남편의 성관계 거부로 이혼을 고려중인 아내의 사례는 신혼이혼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어 공감하는 시청자들이 많았을 것 같고 두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아내의 제사 불참으로 이어진 고부갈등 때문에 이혼을 고려중인 남편의 사례는 신혼 이혼의 핵심적인 이유를 모두 다루는 것 같았다. 특히, 판례 외에 현실적인 결혼생활에서 이런 유형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알려주었다. 각 상황별로 대표적인 사례들을 상담하면서 신혼이혼의 대략적인 사유와 해결책을 짜임새 있게 잘 다루었고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고루 잘 다루었다.

무엇이든 물어볼 法에서 다룬 내용도 이혼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헤어질 때 반려동물 양육권과 반려동물 면접교섭권에 대한 서로의 권리를 주장할 만큼 이별이라는 공통 주제로 반려견의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라 흥미로웠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11. 22.	시청률	0.009

【총 평】

“그녀 술독에 빠지다!”는 술맛도 모르던 50대 여성이 전통주 양조자가 되어 우리술 품평회 대상 2관왕, 청와대 만찬주에 선정될 만큼 성공을 거둔 스토리가 소개돼 귀촌과 전통주 제조 지망생들에게 롤모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전통방식 그대로 쌀과 누룩으로만 전통주를 만들면서도 발효과정을 5회 거쳐 시중 전통주와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오양주의 고품질화에 성공한 비결을 소개했다.

양조업에 입문하게 된 동기와 시행착오, 전통주 살리기 사명감, 정성을 쏟는 수작업 과정, 남편 등 가족들의 지원 등의 과정이 진솔하게 그려져 감동으로 다가왔고, 딸이 골프를 포기하고 어머니의 전통주 양조기술을 전수받으며 가업을 잇는 점도 보기 좋았다.

【구성 및 내용】

살어리랏다 ‘그녀, 술독에 빠지다!’는 경기도 평택의 한 양조장에서 전통주를 만들고 있는 귀촌 6년차 이 대표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전통주를 만드는 과정부터 노력,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전통주를 전해주었다. 왜 전통주 오양주를 만드는데 대한 주인공의 의지와 술에 대한 철학이 잘 그려졌고, 발효과정에 미생물을 첨가하는 등 독특한 제조과정을 담아 다큐성을 살린 구성이 돋보였다.

현대인의 대표적인 기호식품인 술을 마시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만드는 것은 좋아하는 귀촌 6년차의 이 대표는 여러 전통주를 만들지만 그 중 특히 오양주는 청와대 만찬주로 사용되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일반 막걸리는 한 번 빻은 술인 단양주로 발효 횟수에 따라 단양·이양·삼양·사양·오양주로 분류된다. 지역의 좋은 쌀, 물, 누룩으로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며, 초반에 많은 실패를 겪으며,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술은 판매하지 않고 과감하게 폐기했다.

좋은 쌀이 나오기로 유명한 평택의 쌀은 술이 될 준비를 한다. 전통주를 만들지만 청결과 위생이 확실한 최신 시설로 만들어진 공장이 바쁘게 움직인다.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쌀로 잘 지어진 밥을 식힌다. 이후 밑술에 고두밥을 넣어주는데, 고두밥은 발효를 위한 미생물의 먹이가 된다. 모든 작업은 대부분 수작업을 거치다보니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손맛을 위해 항상 정성을 쏟고 좋은 마음을 주입한다.

전통주의 매력에 빠진 딸도 함께 한다. 딸은 전통주의 생산부터 마케팅까지 참여하며, 막걸리 학교를 다니며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남편은 30년간의 은행생활을 마치고 모든 퇴직금을 전부 투자했는데, 술맛도 좋았으며 평생의 일자리로서 과감한 투자를 했다.

둘째 딸과 남편이 엄마와 아내의 꿈을 지지하며, 가업으로 이어가려는 모습은 가족애와 동시에 사명감과 책임감이 전해졌다. 또, 주인공의 성공 사례를 통해 전통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성장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

프로그램	슬기로운 취준생활 일자리센터		
방송일자	2020. 11. 22.	시청률	0.035

【총 평】

슬기로운 취준생활 일자리센터 '세상을 향해 홍보하라, 홍보 기획자'는 소통과 정확성을 요구하는 홍보기획자에 대해 방송했다. 특히, 입사 경쟁률, 취업 선배의 입사 노하우, 홍보기획자 24시, 취업 선배가 전하는 취업 합격 비법, 화상 모의 면접 방법 등으로 직업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동안 방송된 직종은 대부분 이색적이거나 특별한 재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았는데 홍보기획자 직군은 무난한 직군으로 중소기업에서도 많이 채용하고 있는 직군이어서 호감도를 높였다.

【구성 및 내용】

'그 직종이 궁금하다'는 홍보기획자가 하는 일과 홍보기획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실제 연봉과 혜택 등 회사와 직종에 대한 소개가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취업 선배와 회사대표가 함께 홍보기획자의 업무와 소양에 대해 소개를 했고 특히 연봉에 대해 무척 강조해서 기억에 남는데 초봉이 다른 회사 과장, 부장 정도의 수준이라 무척 놀라웠다. 경쟁률이 무려 4600대 1이라고 밝혀 회사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지기도 했고, 취업 선배가 자신이 탈락한 경험담을 이야기 하면서 같은 회사를 3번째 도전해서 당당히 합격했다는 이야기가 취준생들에게 많은 위안과 자극이 되었을 것 같다. 취업선배는 왜 합격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마음가짐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취준생들의 입장에서 모든 설명을 이끌어 주어 취준생들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고, 무엇보다 탈락해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로해야 한다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서 눈길을 끌었다.

'달려라 신입사원'에서는 취업선배의 업무 모습과 회사의 일반적인 풍경, 취업선배가 작업한 작업물 등을 우선적으로 소개하고 다른 선배와 함께 취재하는 모습을 통해 홍보기획자의 업무를 실감나게 소개했다. 특히, 회사의 자랑인 헬스장, 디자인 벽, 천원 카페 등으로 이동하면서 회사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부각시켰다. 이 밖에 포상제도, 근무시간, 고급차량 대여 등 각종 혜택을 끊임없이 언급해 회사에 대한 존재감을 높였다.

'선배의 취업 꿀 조언'은 취업선배가 직접 들려주는 합격비법 3가지를 소개하고 AI 역량 검사에 대한 정보를 소개했다. 특히, 나 자신의 대한 역량을 키우고 자신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라고 조언을 했는데 정말 와 닿는 내용이었고 확실히 실패해본 사람의 뼈 있는 조언이라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또, 직무적합도 평가나 AI 역량검사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다.

'어서 와, 이런 면접은 처음이지?'에서는 두 명의 남자 취준생이 조금 어렵고 난해한 질문에도 소신껏 답변을 잘해 주었고 한 문장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꿈이 무엇이나 등 회사 대표의 참신한 질문도 기억에 남았다.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솔직한 답변으로 이어져 진정성이 느껴졌다.